

2026년 사순절 사목교서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마르 10,4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거룩한 희년 동안 우리는 ‘희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은 희년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니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기본자세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 무거운 걱정과 시련에 짓눌린 사람들을 만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지쳐 있고, 세상과 사회의 갈등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현실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냉정하게 깨닫게 합니다. 간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곧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마르코 복음의 이 말씀은 다가오는 뷔르츠부르크 가톨릭대회에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먼 바르티매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건네진 말씀입니다(마르 10,49). 이처럼 복음말씀이 주는 희망에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용기가 우리에게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이 악과 증오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희망에서 자라나게 되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은 필요한 용기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먼저 우리 내면의 피로감과 체념, 두려움과 걱정을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무엇에 지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나쁜 습관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나를 내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순절에는 침묵과 기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필

요합니다. 이 시기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며, 일상의 반복을 멈추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내적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화해의 성사를 받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실과 화해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각 개인의 삶과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활을 향한 참회의 시기에, 잠시 멈추어 내적 성찰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묵하셨고, 유혹들과 마주하셨으며, 그 후에 결단력과 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한 기회와 도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지 시간을 내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출발이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디에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본당들에서는 본당 사목협의회와 사목구 사목협의회,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투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의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책임을 맡으며,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자 한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많은 걱정과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본당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런 사목협의회에 기여할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특별히 용기 있는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출된 이들은 본당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본당의 미래, 나아가 지역 교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교구 관할 지역인 베를린과 포어포메른주(Vorpommern)에서는 주의회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적 선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가 처한 사회적 도전들에 책임감을 보여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해 정치적 책임을 맡고자 출마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참여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봉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용기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의 결단이며, 아주 중

요한 표징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의 확신을 함께 나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표징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용기를 내라는 호소만으로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보여 주셨고, 끝까지 참아 견디어 내고 늘 새롭게 출발하셨으며, 우리 역시 용기 있는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겪은 실망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과 그분 안에서 가능한 것을 더 크게 믿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향한 용기있는 첫걸음을 다시 내디딜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축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좌절과 무기력, 체념을 이겨내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며,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러한 확신 안에서 우리는 용기 있는 교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을 향한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베를린대교구장

하이너 코흐 대주교